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2)

▩辦道具 須儉約知足
(판도구하되 수검약지족하고)

齋食時 飮啜不得作聲
(재식시엔 음철부득작성하고)

執放 要須安詳 不得擧顏顧視
(집방엔 요수안상하고 부득거안고시하며)

不得欣戚精麤
(부득흔염정추하고)

須默無言說 須防護雜念
(수묵무언설하고 수방호잡념하며)

생활도구를 가려 쓰되 모름지기 검약하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공양할 때에는 후루룩 쩝쩝 마시는 소리, 씹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고 수저나 그릇을 다룸에 있어서는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레 다루며

고개를 들어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지 말고 맛 있는 음식은 반기고 거친 음식은 싫어하거나 해서는 안된다.

모름지기 공양 중에는 말을 하지 말며 잡념이 일지 않도록 심신을 단정히 하고

▩須知受食 但療形枯 爲成道業
(수지수식은 단료형고하여 위성도업이라)

▩瞻敬尊顏 不得攀緣異境
(첨경존안하되 부득반연이경하며)

須知自身罪障 猶如山海
(수지자신죄장이 유여산해하여)

須知理懺事懺 可以消除
(수지이참사참으로 가이소제하며)

深觀能禮所禮 皆從眞性緣起
(심관능례소례가 개종진성연기하고)

深信感應不虛 影響相從
(심신감응불허하야 영향상종이라)

(앞넘으로)부처님의 거룩한 얼굴을 우러러 보되 다른 경계에 끄달려(형상으로 보아)얽매여선 안된다.

모름지기 자신의 죄·업장이 마치 저 산 같고 바다 같은 줄 알되

모름지기 이참·사참으로 이를 녹일 수 있음을 알라(모름지기 죄업엔 본래 자성이 없어 오직 삼독심·번뇌 망상의 생각따라 일어 난 것임을 깊이 관하여 그것이 나온 자리에 돌라 놓고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으리라 사무치게 느끼면 이로써 가히 죄업이 소멸될 수 있음을 알라).

예배 하는 자신과 예배 받는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어서 다같이 진여성품으로부터 인연따라 나툰 줄을 깊이 (믿고) 관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중생과 부처가 둘 아니게

생활도구 아껴쓰며 만족할 줄 알아야
음식먹는 것은 도업의 성취를 위한것

須念般若心經 觀三輪淸淨 不違道用
(수념반야심경하고 관삼륜청정하여 불위도용이라)

赴焚修 須早暮勤行 自責懈怠
(부분수하되 수조모근행하여 자책해태하며)

知衆行次 不得雜亂 讚賞祝願
(지중행차에 부득잡란하며 찬패축원하되)

須誦文觀義 不得但隨音聲 不得調曲不調
(수송문관의언정 부득단수음성하며 부득운곡부조하며)

음식을 받는 것은 다만 이 몸뚱이 말라 시드는 것을 다스려 도업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 줄 잘 알아야 하며,

모름지기 반야심경을 호념하되(모름지기 물질과 마음이 둘 아닌 줄을 깊이 관하되) 무주상 보시의 청정함을 생각하여 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할 것이다.

향 사르고 예불 올릴 때는 모름지기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않게 스스로 늘 채찍질하고 대중의식을 행할 때는 어수선하지 않게 하며 범패하고 축원 함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글을 외어 참 뜻을 관할지언정 단지 소리를 따라 외지 말고

소리와 곡조가 고르지 못하게 해서도 아니된다.

感應함이 (결코) 헛된 게 아니라 물체에 그림자 따르고 소리에 메아리가 서로 좇아 오는 것 같음을 깊이 믿을 지어다.

▩居衆衆 須相讓不爭 須互相扶護
(거중료하되 수상양부쟁하며 수호상부호하며)

愼諍論勝負 愼聚頭閒話
(신쟁론승부하며 신취두한화하며)

愼誤着他鞋 愼坐臥越次
(신오착타혜하며 신좌와월차하라)

대중 밤에 거처할 적에는 모름지기 서로 양보하여 다투지 말고,

서로 간에 북돋우고 도와서 옳으니 그르니 논쟁하여 승부 가리기를 삼가하라.

또한 머리 맞대고 모여 앉아 한가히 쑥덕거리지 말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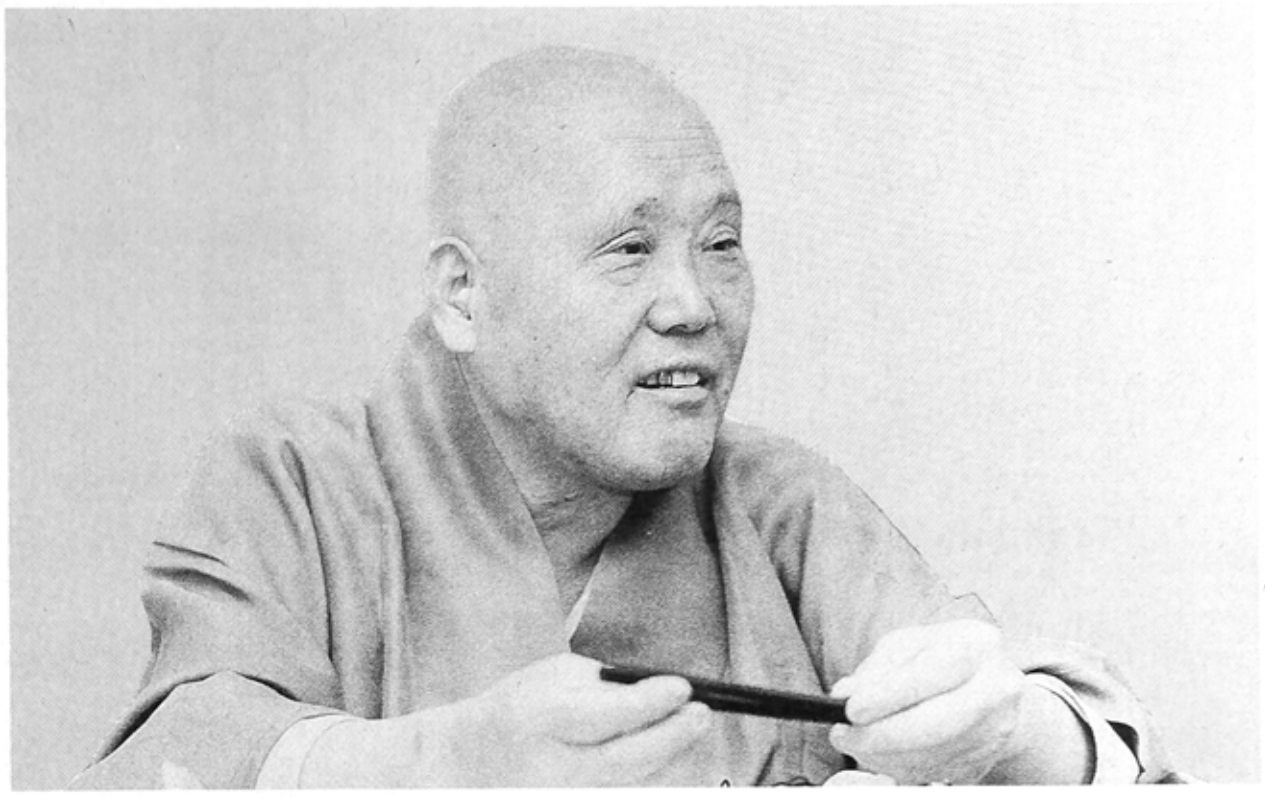
다른 이의 신발을 잘못 신을 정도로 들뜨거나 예의를 몰라서는 안되고 자리 잡아 앉거나 누울 때도 차례를 어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龍 眼

바로잡습니다. 제2호 8면 다시푸는 경서의 한자 본문 끝행의 「법전장」은 봉존장(逢尊長)의 오식이옵기 바로 잡습니다.

지상 법석

"내 모습 비춰보면 부처님 보여



승찬 스님 <송광사 방장>

또 한철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이치는 어김이 없습니다. 우주의 대자연은 제 갈길을 어김없이 가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변함없이 서 있고 개울물 흐르고 바윗돌들이 아름다운 저산은 산이기에 앞서 대자연입니다. 그래서 저 산에서도 대자연의 순리대로 끝없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지고 하는 것도 대자연의 말없는 변화고, 산이 변화속에 사시사철 모양을 바꾸는 것도 대자연의 호흡입니다. 해와 산과 나무와 개울물만 자연인 것은 아닙니다. 우주 속의 모든 것이 자연입니다. 대자연인 것 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자연 속의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소자연입니다. 우주의 대자연과 다를 것이 없지만 소규모의 자연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대자연 속의 소자연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소자연 말입니다.

주부님들이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있어 큰 살림이니 작은 살림이니 나눠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살림이나 작은 살림이나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은 다 갖춰야 살림살이가 되는 법이지요.

마찬가지로 대자연이나 소자연이나 갖출 것은 다 갖춰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소자연도 대자연과 마찬가지로 살아야 합니다. 대자연의 말없는 흐름과 같이 인간도 원칙을 무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아야 편안한 것입니다. 대자연을 버리고 소자연인 인간이 편하게 살 수는 없다는 이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자연과 소자연

대자연을 정복한다는 것이나 보호한다는 것도 소자연 단속이 앞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소자연인 인간은 자연스럽지 않은데 대자연을 정복하거나 보호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소자연을 못 다루면서 어떻게 마음대로 대자연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소자연인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소자연인 나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일까요. 소자연의 완성이 곧 대자연의 완성인데 어떻게 소자연을 완성 시켜야 하느냐 이 문제를 풀어 낸다면 대자연도 없고 소자연도 없는 대각의 경지로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자연의 완성 다시 말해서 나의 완성을 위해 꾸준히 참선을 해야 합니다.

대승적 수선(修禪)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승적 수선이란 무엇입니까. 대승적으로 선을 닦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완성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내는 그런 선을 닦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나 역대조사 여러 큰스님들의 길을 오늘의 우리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성품과 행실을 돌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반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소자연을 밝은 눈으로 살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요된 반성은 반조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돌이켜 보며 제 사는 길을 돌이켜 보고 완성의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비추는 일이야말로 나의 진면목을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참선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는 시간이 따로 있을 수 없으니까요. 시시각각 하루 스물네시간. 이틀이면 마흔여덟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자신을 비추는 반조의 시간이요. 참선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모두 반조의 시간이요. 참선의 시간이 되야 합니다. 반찬거리를 사러 가서도,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비춰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한낱 몸뚱이의 움직임일 뿐이고 그것을 알면 인간의 생명을 가치있게 이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권투선수가 상대편과 권투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운동경기 입니다. 그러나 그 운동경기를 하는 선수가 자신의 행위를 비춰보지 않고 상대편을 무작정 이기기만 하려 한다면 그것은 싸움질이 될 뿐, 운동경기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반조하는 것, 돌이켜 자신을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아차산영화사
부설(관인)영화 유치원
회 주 송 월 주
대중일동
성동구 구의동 산 9
☎ 444-4321, 7215

만의사
노 총 주
전 무 지
응 성 정
진 직 락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 (0339)72-6005

직지사 대구 수성구 포교원
원 장 도 일
대구 혜명회 신도일동
부산 혜명회 신도일동
대구직할시 수성고 범어2동 171
☎ (053)754-8629

무애원 포교당
원 장 설 봉
신도일동
영등포구 신길6동 36-1
☎ 846-2156

연화정사
주 지 정 명
신도일동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255-1
☎ 887-6458

삼선포교원
삼선승가대학
보탑사
강원 주장 묘지 순광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255번지
923-0582, 922-965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 483 보련산
☎ (0434)33-0206

재단법인 선학원
해운정사
조 실 임 진 제
사부대중일동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412
☎ (051)746-2256

화계사
조 실 숭 산 행 원
신도일동
도봉구 수유1동 487번지
☎ 902-2663, 903-3361